

# HYUNDAI E&C TODAY

Vol 400  
2021/5/24 MON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 사보신문 400호 기념 특집

2001년 9월 28일 창간애 어느덧 지령 400호, 스무살이 된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이 성년이 되기까지 함께 애준 모든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과거 사보신문을 빛내줬던 사우들을 다시 만났다.



1 한국 최초의 남극 연구기지인 세종과학기지의 1988년 준공식 당시 모습. 2 디에이지 아너힐즈 전경. 3 사우디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전경. 4 불굴의 현대정신으로 도전과 혁신을 실천했던 정주영 선대회장. 5 싱가포르 주공 석유비축기지 공사 현장의 모습. 6 대한민국 최초이자 현대건설의 해외 첫 수주,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7 쿠웨이트시티와 북부 수비아 지역을 잇는 36.14km 길이의 쿠웨이트 세이크 자베르 코트웨이 해상교량.

## 현대건설 창립 74주년

# 74년의 나이테를 두른 현대건설 위대한 도전과 성장의 역사

1947년 5월, 정주영 선대회장이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세월의 나이테를 두르며 단단한 거목(巨木)으로 성장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초동 현대자동차공업사 공장 한편, 10여 명의 직원으로 뜻을 올렸다. 광복 이후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끊어진 다리를 잇고 건물을 세우며 국가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 70년대에는 중동 땅을 누비며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고, 국토 개발의 최선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다. 현대건설의 도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현대건설은 국내를 넘어 세계 62개국, 총 850여 건에 이르는 공사를 따내며 독보적인 '글로벌 건설리더'로 우뚝 섰다.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시장 진출'(1965), '국내 최초 해외 공사 누적 수주액 1000억 달러 돌파'(2013), '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원 달성'(2015) 등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신기록도 쏟아졌다. 어느새 작은 묘목은 훌쩍 자라 땅 위로는 울창한 그늘을 만들고, 땅속으로는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선배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땀으로 키워낸 값진 성과다. 진심을 다한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듯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현대건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 관련기사 4, 5면

Former chairman Chung Ju-yung planted the small tree in May 1947 which grew into the gigantic tree of Hyundai E&C. Korea's foremost builder was established in a factory of Hyundai Auto Service located in Cho-dong, Seoul, together with only about 10 employees. After the 1945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Hyundai E&C laid the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by constructing bridges and buildings across the country. In the 1970s, the builder raked in petrodollars in the Middle East area, taking the lead in the growth of the country. As a result, Hyundai E&C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global leading company by winning a total of 850 construction projects in 62 countries. Moreover, Hyundai E&C set unprecedented record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t entered the overseas market for the first time among domestic competitors in 1965, and its cumulative overseas orders exceeded 100 billion dollars in 2013, a first for a Korean builder, while its operating profit surpassed one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in the industry in 2015. ▶ Continued on page 4, 5

##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 SCIENCE

과학이 바꾸는  
인류의 삶

### TRAVEL

국내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지

### VIEW

창립 기념 현대건설  
역사 테스트

# Hyundai E&C’s cumulative orders for urban renewal projects exceed 1,2919 trillion won

Korea’s primary builder maintains its foremost position in the urban renewal market

Hyundai E&C’s cumulative orders for domestic urban renewal projects have exceeded 1.2919 trillion won this year by winning an order to redevelop the Haha District in Jeonju-si. Our company was ranked the first in terms of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for urban renewal projects in the domestic market in 2020.

Our company was selected to redevelop the Jeonju Haha District on May 22. This redevelopment project valued at 424.6 billion won aims to transform the area into a high-class Hillstate-branded town which has future value,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excellent environment. The Jeonju Haha District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27 apartment buildings of 17 floors above ground and two basement levels in the 324,539 square-meter area.

Our company successfully received the deal to reconstruct Hannam Sibeom Apartment on May 9 and another order to redevelop Geumoh District 1 in Uijeongbu-si on the same day. THE H Maison Hannam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four apartment buildings of four floors above ground and four basement levels in the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공사사업

7,345.4-square meter area, while the Uijeongbu Geumoh District 1 project is to build 11 apartment buildings of 32 floors above ground and three base-

ment levels in the 32,509-square meter area. In addition, our company also won an order to reconstruct Sinam District 10 in Dong-gu, Daegu, on

April 30. The Sinam District 10 project is designed to build 13 apartment buildings of 15 floors above ground and three basement levels.

#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1조2919억원 돌파 ... 독보적인 ‘강자’로 우뚝 서다

5월 22일,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공사 수주 ... 2016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수주 달성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던 우리 회사가 최근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공사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며, 올해 총 7개 사업에서 누적 수주 금액 1조2919억원을 돌파했다.

우리 회사는 5월 22일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공사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

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4246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32만453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7층, 총 2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9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는 프로젝트다. 단지는 미래가치·교통·환경 3박자를 갖춘 고품격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난다.

한편, 5월 9일에는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의정부 금오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연달아 따내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할 예정인 ‘한남시범아파트(디에이치 메종 한남)’는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34길 22(한남동) 일대 7345.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총 4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의정부 금오생활권 1구역’은 경기 의정부시 250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83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는 공사다.

이 밖에 지난달 30일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3개 동 824세대

규모의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따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도시정비 분야에서 올해도 꾸준히 좋은 실적을 쌓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Hyundai E&C wins main prize at iF DESIGN AWARD 2021

Our company has been awarded the main prize for “The Clean Zone,” a fine dust reduction product, at “iF DESIGN AWARD 2021,” one of the world’s top three design awards.



iF DESIGN AWARD is a global design competition held annually in Germany since 1953.

The Clean Zone was designed to reduce pol-

lutants amid the Covid-19 pandemic by combining the air washer system and the mist cooling fog system. The Clean Zone is effective in removing pollutants and fine dust and sterilizing users

when they enter indoors after outdoor activities. Starting with the THE H Honor Hills, our company plans to apply The Clean Zone to THE H La Class and THE H Xi Gaejo.

#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iF DESIGN AWARD 2021’ 본상 수상

우리 회사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DESIGN AWARD 2021’에서 미세먼지 저감 상품인 ‘클린존(The Clean Zone)’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iF DESIGN AWARD’는 1953년부터 독일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공모전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인 ‘클린존’은 에어워셔와 미스트 쿨링포그 시스템이 결합된 제품으로 코로나 상황 하에 특화된 오염물질 저감 상품이다. 외부 활동 후 실내에 들어갈 때 남아 있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살균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 회사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디에이치 라클라스’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 Hyundai E&C enters the CDP Hall of Fam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Korea, a local branch of one of the most prestigious sustainability evaluating agencies, announced that Hyundai E&C has entered the CDP Hall of Fame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CDP provides investors around the world with analysis reports on global leading companies’ management information concerning environments. CDP’s evaluation results are offered to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 guideline for investment, and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reliable sustainability evaluation indicators, along with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 ‘CDP Korea 명예의 전당’ 3년 연속 수상

우리 회사가 최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0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3년 연속 입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물, 삼림 자원 등 환경과 관련된 경영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공개돼 투자지침서로 활용되며,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 지수’와 함께 신뢰도 높은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등급은 ‘리더십 A’부터 ‘불합격 F’까지 총 9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 회사는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현대건설의 우수한 탄소 경영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공 중 환경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The 2021 Quality Week campaign

Our company staged the 2021 Quality Week campaign between May 10 and 14 to increase quality awareness and establish high-quality construction culture.

Under the slogan of “Promotion of Quality-centric Culture,” this Quality Week was intended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of both Hyundai E&C and subcontractors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quality construction and improve quality awareness. While a variety of events were featured, 7 Quality



Golden Rules Norms we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in a poster form to all our domestic construction sites.

# ‘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캠페인 ‘2021 Quality Week’ 실시

우리 회사가 품질 의식 제고와 고품질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1 상반기 Quality Week’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Quality Week는 ‘품질 기본 중시 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품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1 상반기 Quality Week’에는 품질 업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제도, 현장 품질 업무 등에 대한 금규증을 풀어주는 ‘품질 고민 상담소’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품질 4행시 챌린지’ ‘품질관리실이 쓴다’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기획해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 품질 마인드 강화를 위해 ‘7대 품질 규범’을 제정, 포스터로 제작해 국내 전 현장에 배포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 이벤트가 아닌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의식 내재화가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품질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현대건설 2025 전략’에 발맞춰 ‘품질/안전 중심의 현장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스마트 건설 확대’를 위해 모바일/웹 스마트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Q-Pocket’을 개발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323억원 규모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구축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2323억원 규모의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구축공사’를 수주했다. 우리 회사는 기술입찰로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강자의 자력을 입증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구축공사’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및 대브리 일대 15만3418㎡ 규모 부지에 첨단연구동과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정밀분석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북 원자력클러스터와 연계해 향후 소형원자로(SMR) 및 노후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원자력 연구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1단계로 부지 조성, 토공사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정밀분석시설 등의 원자력 기반시설과 SMR 등 미래 원자력

# 현대건설, 안전관리플랫폼 하이오스(HiOs)에 ‘3중 안전서비스’ 추가 탑재

우리 회사가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하이오스, Hyundai IoT Safety System)에 최근 주요 안전 이슈로 주목받는 ▶감염 ▶침수 ▶화재 사고 대응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작업자 위치관제 ▶밀폐공간 가스누출감지 ▶T/C층돌방지 ▶환경민원관리 등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 총 7개의 현장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와 진동입 게이트를 연동해 현장 출입 시 근로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하저터널, 대심도

기술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동을 포함한 연면적 5만7821㎡ 규모의 공사를 맡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 경쟁만으로 낙첨자를 결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이번 입찰에서 건축 및 플랜트 분야의 당사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장대터널 등 지하 공간 건설 현장의 침수사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침수, 수위 데이터를 수집·전달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현대 스마트건설 혁신 현장인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추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타 현장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GROUP NEWS

# Hyundai Motor and UNDP Accelerator Labs present worldwide sustainable solutions

Celebrating six months since the launch of the “for Tomorrow” project, Hyundai Motor Company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released a video featuring three sustainable living solutions from a collection of submissions by grassroots local innovators from around the world.



Six months ago, Hyundai Motor and the UNDP Accelerator Labs launched “for Tomorrow,” an initiative that has sought out, welcomed and enabled people across the globe to help their communities move towards a more livable future. Grassroots innovators from different countries have submitted their solutions via the “for Tomorrow” platform, ranging from hands-on, in-the-field initiatives to digital, data-driven innovations that are answering concrete needs within their communities.

The video – narrated by “for Tomorrow” ambassador, Jessica Alba – signals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themed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Innovators will get support from sustainability experts from May. “Our partnership with UNDP is very meaningful to us. Corporate citizenship is essential to ensuring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communities everywhere, which is why Hyundai Motor is collaborating with the UNDP to help nurture and advance sustainable social entrepreneurship initiatives and innovations,” said Thomas Schemera,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Global Chief Marketing Officer at Hyundai Motor. “In the last six months of our partnership, we’ve seen a lot of solutions that inspire us. I hope these solutions will be the seeds of innovation that will make a better future. In line with our brand vision, “Progress for Humanity,” w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becoming a sustainable society with a sense of corporate citizenship.”

UNDP Accelerator Labs Special Advisor Joseph D’Cruz added, “The goal of ‘for Tomorrow’ is to tap into innovation to accelerate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king with Hyundai Motor, we want to connect with innovators around the world and help find those local solutions.”

# CULTURE

# Hanbok rides the Hallyu wave with modern reinterpretations

BTS’s performance of its 2018 hit “IDOL” at the 2018 Melon Music Awards is considered one of the boy band’s finest by both fans and critics. Fusing the best of Korean tradition with the rhythm of pop music, BTS members flaunted their dance moves that were a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orean fan and drum dance, each clad in modern hanbok, or traditional Korean dress.

When hanbok designer Hwang Leesle, the head of brand Leesle, was requested by BTS’s agency to choose an outfit for Jimin to wear onstage, the most important factor she had to consider was, “Which outfit would be comfortable enough for him to pull off the tough choreography?”

“Hanbok trousers actually have a long crotch width and wide dimensions along the thighs and I was told that he performed feeling very comfortable in the outfit.”

Hwang is known to give a contemporary touch to hanbok attire, conserving the essence of the traditional clothing while making it desirable to the modern eye. Her brand Leesle is run with the philosophy of “giving hap-

pinus to people wearing hanbok.” She has pulled off multiple collaborations with fashion brands and K-pop stars, including BTS’s Jimin and four-member mixed-gender group KARD.

“With KARD, we worked together with the members of the band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 process,” said Hwang. “KARD has a concept where each of the members symbolizes the four trump cards from a deck - the king, the queen, the jack and the ace - and we worked from there to think of hanbok features that suit a king, queen, aristocrat and soldier. The color red was picked from the band’s theme for [their 2020 EP] ‘Red Moon.’”

In fact, global awareness can be credited with changing the image on contemporary hanbok within Korea.

BY YOON SO-YEON | YOON.SOYEON@JUONGANG.CO.KR



# 현대건설 창립 74주년 함께 축하해요!

5월 25일, 우리 회사 창립 74주년을 맞아 함께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 오투웨이 게시판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대건설을 상징하는 다섯 글자 키워드와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댓글 이벤트! 오투웨이 379건, 인스타그램 630건의 댓글로 국내외 임직원과 수많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을 축하했다. 오투웨이 게시판에 달린 메시지 중 <'좋아요' 득표 70%+심사 30%>로 선정된 임직원 10인에게는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로 예쁜 곳을 배달할 예정이다. 추억 가득, 통통 튀는 아이디어 등복 담긴 메시지를 함께 감상해보자. 글:정리=이진우

\*※: 꽃배달 서비스 선정작. 그 외 메시지가 소개된 임직원 및 지면에 소개되지 않은 커피쿠른 당첨자는 5월 28일까지 개별 연락 예정.

## 국내의 임직원의 축하 메시지

### 매일 그대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를 꼬박 고생하시는 동료와 상사분들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변함없이 항상 함께해 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 그대와 발전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 낙입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보람차게 보내겠습니다. 제 하루 같은 날들이 현대 모여 이뤄낸 현대건설 74주년. 진심을 가득 담아 축하합니다. 모두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함께 걷는 길

창립 74주년을 축하합니다! 선배님들의 꿈과 노력으로 국내 최대 건설사가 됐으며, 동료분들의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고의 건설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왔듯이, 100주년까지 함께 걸어가며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 우리가 현대

오늘의 현대건설이 있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현대이고, '현대'가 곧 우리 직원 모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74년 동안의 꽃길과 앞으로 더 빛나는 꽃길을 만들어갈 우리 모든 임직원,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너를 자랑해

대학생 시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목공학 전공 설명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사진, '이봐 해봤어?' 문구와 함께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과 그 역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당신들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영웅이 되어 달라" 그날을 생각하며 글을 적는 지금, 약간 오글거려지던 가슴이 부풀기도 합니다. 같이 발표한 친구들이 "네가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는데 왜 현대건설을 자랑하나"던 게 잊게끔 같은데 내년에 먼 저도 어느덧 현대건설인 10년차입니다. 74주년 정말 축하합니다. 가슴 뜨거웠던 입사 1일차를 생각하면서 100년까지 함께합시다. 오늘 하루 다시금 설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 무에서 유를

정주영 선대회장님께서 회사를 창립하신 지 벌써 74주년이 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선대회장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설산업 및 미래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최고의 자리에서 빛나는 현대건설이 될 것입니다.

### 현대의 의지

74년 동안 항상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정상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변함없는 '현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도록 변함없이 '현대의 의지'를 가지고 현대건설의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 노력의 결과

74년 동안 현대건설 모든 직원이 애써 왔기에 지금의 현대건설이 있는 게 아닐까요? 현대건설은 많은 직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 덕분에 지난 74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오래 번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며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오늘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건설의 큰형

현대건설 창립 74주년을 축하합니다. 다른 건설사와 희의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를 건설의 큰형이라고 불러줍니다. 항상 기쁜 좋은 단어입니다.

### 나의 자부심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에 "현대건설에 다니는"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 엄마의 자랑

아들이 현대건설에 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즐거우시다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74주년 축하합니다.

### 아빠 회사야

아이가 매체를 통해 현대건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물어봅니다. "아빠 회사야?" "응, 아빠 회사야"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닙니다. "아빠 회사야!"

### 지구의 화가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현대건설은 지구에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인공위성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이듯 우리 현대건설이 그린 역작들이 인공위성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날까지 현대건설이여, 영원하라!

### 현 건 포 레 버

74년 동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끝끝내 결실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역량을 모아 고비를 넘어 반쯤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반갑다 친구

장인어른의 생신이 1947년 6월 19일입니다. 젊은 시절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시며 막내 사위가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현대건설과 동갑내기인 신 장인어른과 함께 현대건설의 74주년을 축하합니다.

### 하이로 뛰자

HIGH 路 RUN! 황우지를 꽃길로 만들어 온 74년간의 그 길, 그 누구에게도 부끄럼지 않고 당당한 현 건인이 되어 가는 그 길, 우리 모두 축하하며 함께 그 길 위에서 미래를 향해 뛰어갑시다.

### 아따따뚜겐

아도겐-오류겐-아따따뚜겐!! 90년대 전국 오락

### 엄마의 자랑

아들이 현대건설에 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즐거우시다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74주년 축하합니다.

### 아빠 회사야

아이가 매체를 통해 현대건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물어봅니다. "아빠 회사야?" "응, 아빠 회사야"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닙니다. "아빠 회사야!"

### 지구의 화가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현대건설은 지구에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인공위성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이듯 우리 현대건설이 그린 역작들이 인공위성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날까지 현대건설이여, 영원하라!

### 현 건 포 레 버

74년 동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끝끝내 결실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역량을 모아 고비를 넘어 반쯤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반갑다 친구

장인어른의 생신이 1947년 6월 19일입니다. 젊은 시절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시며 막내 사위가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현대건설과 동갑내기인 신 장인어른과 함께 현대건설의 74주년을 축하합니다.

### 하이로 뛰자

HIGH 路 RUN! 황우지를 꽃길로 만들어 온 74년간의 그 길, 그 누구에게도 부끄럼지 않고 당당한 현 건인이 되어 가는 그 길, 우리 모두 축하하며 함께 그 길 위에서 미래를 향해 뛰어갑시다.

### 아따따뚜겐

아도겐-오류겐-아따따뚜겐!! 90년대 전국 오락

##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아온 축하 메시지

### 글로벌원탑

우선 현대건설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힐스테이트에서 살아본 '인으로서 건축자재 품질 및 마감, 입주 후 하자 AS까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원탑의 위치에 오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파이팅! @kmnye\*\*\*

### 레전드기업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앞장서 이끌고 건설 분야에 있어 수많은 성과를 남겨 온,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 그 자체이자 레전드 같은 존재죠. 앞으로 대표 건설사로서 더욱 많은 사람 믿고이고 승승장구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hbsm0\*\*\*

### 건설자부심

현대건설 창립 74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설 자부심'으로 멋진 모습 응원할게요. @88ee...me\*\*\*

### 호뭇함가득

축하드려요! 더 큰 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오래도록 이어져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고 사랑 받으리라 확신하면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늘 꽃길 가즈아~ 멋져부러! @bcs1\*\*\*

### 튼튼한건설

75주년 때도 현대건설은 튼튼하다는 마음 변치 말고 이어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yuju\_mo\*\*\*

### 튼튼한회사

벌써 74주년이에요! 긴 시간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하길 바랍니다. 74주년 넘뜬 축하드립니다! @lavender\_1\*\*\*

### 튼튼합니다

현대건설 창립 7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나아갈 미래 또한 기대됩니다. 90년, 100년 쭉족 많은 성원과 사랑 속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sumii\*\*\*

### 건설특전사

완벽한 체력을 가진 특전사처럼 완벽하고 안전한 건설 기술로 못 짓는 게 없는 멋진 건설사- 74주년 지금까지 걸어온 꽃길 앞으로도 꼭 걷기 바랍니다. @ssbok\*\*\*

### 월드클라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건설! 외국에서 수도도 많이 따내고 클라스가 달라질라~ 창립 74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월드클라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서 명성을 이어가주시길 바랍니다! @hbsm0\*\*\*

### 품질최우선

74년의 대표 경력자가 지어준 우리 집 넘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신뢰해 주는 게 진정한 최고 중 최고 아닐까요? 앞으로도 그 믿음 꼭 지켜갈 수 있도록 파이팅! @chunjun\*\*\*

### 현재건설중

쉽없는 발전으로 74년이란 시간 동안 성장해 온 현대건설의 현재와 더 나아질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ye\_shopping\_tra\*\*\*

### 늘변함없이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현대건설이 5월 25일 창립 74주년을 맞게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ryujina2\*\*\*

### 머무는행복

현대건설의 창립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4년을 기반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itsyo\*\*\*

### 국대건설사

국가대표 최고 건설사인 현대건설 축하합니다- 더욱 발전하세요! @heony\_da\*\*\*

### 튼튼합니다

현대건설 창립 7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나아갈 미래 또한 기대됩니다. 90년, 100년 쭉족 많은 성원과 사랑 속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sumii\*\*\*

## 현대건설, 역사(歷史)를 건설하다

우리 회사는 1947년 창립 이래 74년 동안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 길을 내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랜드마크를 지으며 '역사(歷史)'를 건설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 했지만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세운 '최초' '최대' '최고'의 기록들.

### 현대토건 설립 1947.05

1958.05 한강 인도교 복구 수행된 단일 공사 중 최대 규모

### 1966.12 한국비료 울산공장 생산량 세계 최대 규모

1968.12 경인고속도로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

### 1970.06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국토 대동맥

1978.04 고리호기 국내 최초 원전 건설

### 1987.04 압구정 현대아파트 국내 최초 고층 아파트

1988.02 남극세종과학기지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 2004.06 영흥화력 345kV 송전선 세계 최초 초대형 해상 송전선로

2006.09 힐스테이트 브랜드 론칭

### 2011.09 킨텍스 제2전시장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 국내 최초 10만㎡ 국제 규격 전시 인프라 구축

2010.04 새만금방조제 총연장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

### 2012.09 카타르 5·6차 비료공장 생산량 세계 최대 규모 단일 비료공장

2013.11 국내 건설사 최초 누적수주액 1000억 달러 달성 현재 누적수주액 약 1336억 달러 (2021. 5. 24, 해외건설협회 기준)

### 2015.04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TH) 론칭

2016.08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세계 최대 사장현수교, 세계 최고 주탑 322m

### 2018.05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열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 발전용량 (330kW, 단일 지열발전소 기준)

2019.04 쿠웨이트 세이크 지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세계 최장 해상교량

### 2021.04 UAE 바라카 원전 최초 수출 한국형 원전 상업운전 개시

2021.04 카타르 국립박물관 세계 최초 건축 과정 3D BIM 도입, 기둥과 직선 없는 비정형 건축물

사보신문 400호 기념 특집

과거 vs 현재, 그 시절 우리를 만나다



사보신문 400호를 기념하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선 사우들.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구영 책임(재무관리실), 신중우 책임(사업지원실), 배창훈 팀장(국내투자개발실), 신주환 책임(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 현장).



Back to 2006

결혼과 육아가 고민이던 2030 청년 ... 베테랑 유부남이 되다

2000년대 중·후반 재정부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4인방이 2021년 다시 뭉쳤다. 사보 97호(2006년 2월 28일자) 취재 당시 미혼이던 신주환 책임과 정구영 책임은 어느덧 결혼을 해 배창훈 팀장과 함께 학부형이 됐고, 신중우 책임은 대학생 자녀를 뒀다. “가깝게 있고 있던 추억인데, 사진을 보니 바로 기억이 나네요. 신주환 책임의 결혼을 축하하며 강남의 한 지하 호프집에서 만났잖아요.” 배창훈 팀장 “하하, 그때 참 고마웠어요. 얼마 전 사우디 현장에서 복귀해 한국이 아직 어색한데, 사보신문에서 기회를 주셔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신중우 책임 당시 기사의 핵심은 ‘공·경·애 클럽’. 공·경·애는 공처가·경처가·애처가의 줄임말로, 배창훈 팀장은 인터뷰에서 “술은 1차에서 가볍게 끝내는 것이 행복한 부부생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신중우 책임 역시 “아내가 최고!”라며 배 팀장 못지않은 사랑꾼임을 드러냈다. 15년이 지나 모두가 유부남이 된 지금, ‘공·경·애 클럽’은 여전히 유효할까. “사실 실제 있는 클럽은 아니지만, 배 팀장님은 아파 댁에서 ‘공·경·애’ 할 거예요. 하지만 단연코 술은 1차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웃음).” 정구영 책임 이 말을 들은 배창훈 팀장, 자신은 “가사 일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는다”며 결혼 19년차 베테

누구에게나 반짝반짝 빛나는 20대의 시작, 스무 살이 있다. 2001년 9월 28일 창간에 어느덧 지령 400호, 스무 살이 된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이 성년이 되기까지 함께해 준 모든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과거 사보신문을 빛내줬던 사우들을 다시 만났다. 글=박현희

인천국제공항철도공사 멘토와 멘티 ... 현장의 팀장이 되어 만나다

2004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SOC 민자 사업이자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화제를 모은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두 주역이 17년 만에 만났다. 사보신문 64호(2004년 7월 23일자)에서 “우리도 1000년 개런터를 시도해 볼까?”라고 말했던 두 사람의 재회 장소는 그들이 열정을 바쳤던 공항철도 서울역, 당시 멘토(과장)와 멘티(사원)였던 백진욱 팀장과 김재우 팀장은 어느덧 각각 민자철도 경력 27년, 지하 공간 프로젝트만 20년차인 베테랑이 됐다. “건설사 직원들은 매년 ‘공구리(콘크리트) 친 이야기만 한다’며 아쉬워하면서도, 어김없이 공사 이야기로 귀결되는 두 사람 대화는 오랜만의 만남에도 일말의 어색함 없이 끝없이 이어졌다. “당시 제가 먼저 홍보실에 연락했을 거예요. 장소도 (양코르와트 보물전)으로 제가 정했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지은 거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는 뜻에서 고대 건축물을 관람하고 싶다고요. 재우 팀장도 당시엔 총각이었지만 이제 아이가 있으니 공항철도를 타면서 ‘아빠가 있던 현장이야’라고 말하겠군요.” 백진욱 팀장 “탈 때마다 딸에게 말하죠(웃음). 옛저때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공구 현장에 발령받았지만, 그 전에는 서울 제물포로 지하화 현장에서 5년 반 정도 근무했어요. 사실 형님(백진욱 팀장)이 계산 현장까지는 차로 30분이면 갔을 텐데, 각자 현장이 바빠 돌아서 밤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사보신문 덕분에 근 20년 만에 얼굴 맞대고 대화하네요.” 김재우 팀장 백 팀장은 17년이 지나도 20대 사원이던 김 팀장의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한다. 현장에서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밤 9시까지 톱고동락하다 보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다. “여기저기서 재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유능한 공



멘토와 멘티가 다시 공항철도 서울역 앞에 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도곡) 현장 김재우 사업수행팀장(왼쪽)과 대국·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사원) 백진욱 공무팀장, 오른쪽 사진은 과거의 모습이다.

Back to 2004

사 책임자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칭찬을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백진욱 팀장 흔히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전문가라고 말한다.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각자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두 사람은 자신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준 회사에 지면을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저는 대심도 현장만 다녀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오히려 회사가 지하 공간에 대한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 감사해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할 정도가 됐으니, 과거 백 팀장님 말씀처럼 100년을 넘어 1000년 개런터를 시도해 보고 싶은 바람이에요.” 김재우 팀장 “저 역시 회사가 오래도록 한 분야에 있도록 발령을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전문가가 됐거든요. 회사에서 쌓은 지식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기 위해 사내 교육용으로 『철도의 이해』라는 책도 썼어요. 이런 아웃웃을 낼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준 것이 바로 회사죠.” 백진욱 팀장 “400호를 봤으니 500호, 1000호도 보고 싶다”고 너스레를 떠는 두 사람, 사보신문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보신문은 반가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매체예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보던 사람들이 사보에 나오면 옛 추억이 생각나고 무척 반갑더라고요. 사보에서는 직원 참여형 기사를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사우들이 말하는 생활 꿀팁’ 같은 기사도 실렸으면 좋겠어요. 세련되지는 않아도 그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니까요(웃음).”

누가 아빠일까요?

차분하면서도 신한 인상이 특출한 나태수 책임(상가포도 남백도로(INSO) N13, N15 건설 공사 현장)과 봉어뽕 아들 승민.

사보신문 130호(2008년 7월 30일자)에 등장한 ‘봉어뽕 부자’ 나태수 책임과 아들 승민군이 400호를 맞아 사보신문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양팔에 울룩불룩 나온 살과 오동통한 볼살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승민군은 어느덧 청소년이 됐다. 살이 빠진 모습이지만, 봉어뽕 부자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기엔 차분하면서도 신한 인상이 아빠와 똑 닮았다.

“아빠~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아빠와 싱가포르로 온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하셨죠?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적응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많이 사랑해요!” 아들 나승민

“내 삶에 가장 큰 영웅은 아마도 승민이를 만난 것이 아닐까? 건강하게 잘 키워 주시고 감사해요. 어디서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길 바란다. 아빠의 작은 바람은 코로나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건 알지만, 집에서 게임과 유튜브 시청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야. 물론 그만큼 아빠가 일찍 잠에 들어서 재미있게 놀아주도록 노력할게. 아빠는 항상 승민이 편이야. 사랑해. 더불어! 애와 애독자 중 한 명으로 사보신문이 나오는 날을 늘 기다렸는데, 벌써 400호가 발행됐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매번 감동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애독하겠습니다. 파이팅!” 나태수 책임



Back to 2008

Back to 2003



그때 그 시절처럼, 아빠가 피곤 나간 현장을 방문한 임광태 책임 가족,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 있던 아들이며 이듬해 대학생이 됐다.

18년 만에 방문한 아빠의 일터 ... 현대 가족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과거 사보신문에서는 현장에 방문한 아내가 남편에게 응원 메시지로 보내는 ‘당신의 일터’라는 코너가 인기를 모았다. 사보신문 44호(2003년 8월 1일자)에는 당시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 2공구 현장에 근무 중이던 임광태 책임의 아내 김영실씨의 메시지가 실렸다. “잘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안전모를 씌워 아빠가 일하는 현장을 보여주고자 했던, 열정 가득한 그 시절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촬영 장소는 대성터널이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터널 내·외부 온도 차가 20도 넘게 나서 추웠는데, 아이들이 춥거나 무섭다고 울지 않고 밝게 웃어주셔서 고맙았던 기억이 나네요.” 임광태 책임 2003년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던 임광태 책임은 2021년 안전지원실의 사후파트 파트장으로 전국의 현장을 다니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18년이란 시간의 흐름은 아빠와 일마 품에 꼭 안겨 있던 수하양과 도현군 역시 자라게 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두 자녀는 엄마를 반쯤 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사보신문의 한 칸을 장식한 그 시절 기사는

두 자녀와 아내 김영실씨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저희의 모습과 짧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항상 아침 일찍 바쁘게 출근하시고 누구보다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빠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저희와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시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추억을 많이 쌓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딸 임수하, 아들 임도현 “그 시절 기사를 보니 ‘이런 때가 있었지’ 하고 마냥 웃음이 났어요. 6세, 4세 아이들은 어느덧 성년이 되어 든든함과 행복감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덕분에 옛 추억을 되새겨 보고, 비슷한 콘셉트로 사진도 찍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해 준 나의 반쪽 임광태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아내 김영실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히스토리

회사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고, 임직원의 단합과 소통에 앞장선 사보신문 <HYUNDAI E&C TODAY>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들여다보았다.



1979-2000 사보신문의 전신 일간 <현대건설> 사보신문의 효시(嚆矢)는 일간 <현대건설>이다. 우리 회사는 1979년 1월 임직원 단결과 소통을 위해 <현대건설>을 창간했다.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제작되던 우리 회사의 첫 사보는 1988년 9월 8호부터 12p 전면 컬러의 책자 형태로 리뉴얼 됐으며, 1996년에는 68·76p로 크게 늘어나며 콘텐트를 대폭 확대했다.



2001-2009 생활인 소식을 전달하는 사내 메신저 사보는 2001년 9월 재창간 이후 형식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판형은 신문 대판(395mm×545mm) 형태로 변경하고, 발행주기 역시 월간에서 격주간으로 바꿨다. 사보는 회사의 이슈 때마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06년 9월 힐스테이트 브랜드 론칭 때는 발자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8p에서 12p로 증편한 사보는 영문 번역 기사를 실으며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2010-NOW 재미있고 소통하는 사보로 Jump! 2010년 사보는 제2의 변화를 맞았다. 제호를 <HYUNDAI E&C TODAY>로 바꾸고, 형태 역시 일반 대판 사이즈보다 작고 휴대하기 편리한 베를리너 판형(323mm×470mm)으로 개편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도 개발했다. 2013년 3월부터 사보신문의 주요 소식을 엮은 매일일 서브스 'H-Letter'를 발행하고, '현대건설 레깅스' '20자 백일장' 등 온라인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임직원의 호응을 얻었다. 2014년부터는 '아빠가 쓴다' '현대건설 캘린더' 등 참여형 이벤트를 시행해 임직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갔다.



## 〈나빌레라〉 배우 박인환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던 거지”

**피플인사이드** 56년차 베테랑 배우에게도 꿈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여느 신인 배우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보여주는 날 선 경쟁,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치열함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뿐이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차림에 엉거주춤한 자세, 그럼에도 유려한 몸짓으로 박인환은 2021년 조용히 날아올랐다. 글=유지훈 <더팩트> 기자 / 사진=tvN 제공

박인환이 발레복을 입고 시청자 앞에 섰다.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주인공 덕출 역을 맡으면서다. 여든을 앞둔 중견 배우의 이 특별한 도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나빌레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송강 분)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 ‘오랜만에 보는 가슴 몽클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종영한 이 드라마는 채널 특성상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는 4%대를 밀도는 성적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잘 봤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도 반복송은 안 보고 넷플릭스로 보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지상파만 했거든요. 주말드라마, 일일드라마는 시청률을 20%, 30% 넘기니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니까 방송국 분들과 감독님이 ‘좋은 작품이니까 시청률은 걱정 말라’고 했어요. 〈나빌레라〉는 마음을 정화하는 드라마잖아요. 시대의 거울이고 사회상을 보여준 단 말이에요. 좋은 작품인데 실시간 시청률이 잘 안 나오니까 아쉬웠죠.”

### 데뷔 56주년 배우가 발레복을 입기까지

1965년 드라마 〈긴 귀향 항로〉로 데뷔한 박인환은 올해 데뷔 56년차를 맞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빌레라〉로 미니시리즈의 주연이 됐다. 송출되는 채널도, 작품의 형태도 10대, 20대를 겨냥하고 있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궁금했던 그는 평생 담을 쌓고 지내왔던 인터넷 댓글 창도 들여다봤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조어를 찾아봤고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저한테 ‘입덕’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단어니까 찾아봤지. 알고 보니까 나한테 빠졌다는 말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지 몰랐어요. 아마도 채록(송강)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보는 작품이고 나한테는 큰 도전이었으니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나이에 이런 작품을 또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느니 해보자 했죠.”

그저 주연이라 부담이 됐던 게 아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발레를 선보였다. 그가 맡은 덕출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집배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늘그막에 어린 시절 꿈이었던 발레리노에 도전한다.

“여든을 앞둔 노인네가 운동이라니 누구도 상상을 못 하죠. 덕출처럼 ‘한번 날아보고 싶다’ 성공하지 못 하더라도 시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기둥에다가 몸을 풀기만 해도 쥐가 나고 그랬어요. 안 쓰던 근육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몸을 써야 풀리는 게 근육이에요. 손자·손녀가 초등학교생인데 제가 하는 발레를 따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드라마가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대. 이러니 시청률이 안 나왔지(웃음).”

박인환은 지난해 여름부터 발레 교습소에 다녔다. 일주일에 두 번,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연습이 끝나고 나면 발레복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집에서 연습은 계속됐다. 꿈을 향한 그 열정 하나만큼은 박인환과 덕출의 완벽한 교집합이다.

“발레복을 입는 게 참 민망했어요. 제작진이 신발이랑 옷을 사왔는데 ‘연습할 때는 안 입으면 안 돼요?’ 했어요. 채록이나 입히라고(웃음). 그런데 익숙해지기 위해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이 딱 나오잖아요. 채록이는 날씬하고 나는 두꺼비처럼 배가 볼록하고, 나는 단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대조가 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그 대조가 참 보기 좋았어요.”

박인환은 채록 역의 송강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현실에서는 박인환이 까마득한 선배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는 송강의 발레 제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제자이자 선생으로 〈나빌레라〉를 통해 교감했다. 박인환은 촬영 당시를 회상하더니 “20대 청년과 70대 노인이 서로를 위로해 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좋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며 〈나빌레라〉가 가진 이야기의 힘을 강조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살기 힘들어요. 취직이 어렵고, 일을 하게 돼도 ‘너는 왜 그걸 못해?’ 하면서 혼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힘든 점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니까 위안을 얻을 것도 같아요. 드라마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아요. 세대 단절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메말라가는 이 시점에 〈나빌레라〉로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도와가며 공생하는 과정이 잘

전달됐길 바라요.”

### 76세에 단 날개, 여전히 성장 중

극 중 덕출은 청년 시절 집배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판자촌의 주소를 외워낸다. 그리고 70대가 돼 그 순간을 곱씹으며 발레 연습에 매진한다. 과거의 박인환도 치열하게 살았다. 신인 시절 연극 무대에서 자신감이 넘쳤지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대사를 잃어버려 자신을 질책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떠민 것은 가족이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 데 방법이 없었다”며 굴곡진 배우 생활을 되짚었다.

“방송에 나가서 연기하는 건 경쟁이 치열해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역할이 작더라도 꾸준히 브라운관에 비추려고 노력했죠. 당시에는 단막극이 붐이라 개성 강한 연기가 필요하니까 계속 저를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휘뚜루마뚜루(웃음) 연기했어요. 연속극에 들어가면 6개월 생활이 보장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덕출은 퇴직 후 발레라는 꿈을 찾아 떠났지만, 박인환은 은퇴 후 마땅한 계획이 없다. 그저 설 힘만 있다면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다. 〈나빌레라〉는 그 희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의미있는 작품이다.

“젊었을 때는 50살, 60살까지만 하면 오래 연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못 하고 내가 할 배역도 없을 거니까요. 그런데 친구 선배, 이순재 선배도 여전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웃음). ‘나는 환갑까지만 일해야겠다’ 했는데 어느덧 곧 80세예요. 연기라는 걸 이제 탁 털어낼 수가 없어요.”

56년차 베테랑 연기자이지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박인환. “손녀가 〈나빌레라〉에서 내 연기가 참 보기 편하대요”라며 미소 짓는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자신의 연기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76세에도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그는 이번 드라마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올랐다.

“연기 말고는 딱히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재주가 딱히 없어서 그냥 지금이 좋아요.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는 또래 배우들이 있어요.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탄 윤여정도 그렇고. 대부분 신인 때는 빛을 못 봤어요. 참 치열하게 연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그 사람들도 한번 날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치열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나빌레라〉의 한 장면.

# 과학이 바꾸는 인류의 삶 ‘역사성·우연성·불확실성’

**과학칼럼** 과학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인류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 하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자는 철학적, 후자는 경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과학혁명은 전자의 문제의식이 계몽주의와 공명하며 발생했다. 이때의 과학은 이성 중심의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거대한 철학적 기획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은 후자의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본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이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산업과 기술을 혁신에 부를 축적했다. 글=배대웅 기초과학연구원 커뮤니케이션팀장

## 과학의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학은 본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행위다. 경제 발전이나 물질적 풍요 등 현실의 목적성을 담지 않는다. ‘인류 지식의 지평 확장’이 과학의 본령에 해당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부수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과학과 인류의 현실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과학은 때로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문명의 일대 진보를 이루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에 확인되지 않으며, 예측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과학의 효과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인지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은 조금씩 인류의 삶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 문명의 수준을 크게 높인다. 과학적 발견과 그 활용도 정밀한 인과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우연과 불확실성이 많이 개입된다. 연구 계획을 세워도 엉뚱한 방향으로 튼 경우가 많으며 거기서 대단한 발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뭔가 발견하더라도 당시에는 그걸 어디에 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시간이 흘러 그 발견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만들어지고, 응용에 대한 여러 힌트와 시도가 겹쳐지면서 기술과 제품으로 확립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학은 역사성, 우연성, 불확실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수준을 높인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과학상도 인류의 진보를 이끈 과학자들이 주로 받는다. 역대 노벨 과학상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현대 인류 문명의 흥미로운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미지의 광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다 ‘X선’

1895년 빌헬름 뢰트겐은 음극선관의 자외선 방출 실험 중 정체를 알지 못하는 광선을 발견했다. 음극선관에서 방출된 광선이 물체들을 관통해 몇m 떨어져 있던 바륨과 반응해 갑자기 빛을 냈던 것이다. 이 현상을 더 알아보고 책을 가림막으로 썼다가, 책 안의 열쇠와 책을 든 자기 손의 뼈가 투과돼 비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뭔가 발견은 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미지수를 뜻하는 ‘X’라고 명명했다.

몇 년 뒤부터 X선은 의료기술로 활용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 또한 X선으로 원자 내부를 관찰하게 되면서 원자 구조 규명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의 발견이 이뤄진다. X선으로 인해 핵물리학이 태동한 것이다. X선 발견이 없었다면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은 물론 현대 의학의 중요한 성취인 DNA, 해모글로빈, 인슐린에 대한 구조적 이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뢰트겐은 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이후에도 X선을 활용한 연구로 20여 명의 수상자가 더 배출됐다.

## 공기 중의 질소로 빵을 만든다 ‘하버법’

인류를 구한 ‘과학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프리츠 하버는 거의 첫손에 꼽힐 것이다. 그의 최대 공로는 공기 중의 질소를 메탄에서 추출한 수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암모니아로 합성해 낸 것이다. 이때 필요한 촉매제로 ‘철’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아낸 덕에 질소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하버법은 식량 생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인류를 기아의 위험에서 구해냈다. 당시 토머스 뮐러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명제가 정설로 인정받던 시대로, 20세기 초 유럽에서도 식량 부족과 기아 위험이 상시적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하버법으로 개발된 질소비료가 출시되자,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량의 2배를 기록했다. 덕분에 20세기 초 약 16억 명이던 세계 인구가 100년도 안 돼 70억 명까지 급증했다. 하버법이 없었다면 최소 수십억 명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1918년 노벨위원회는 “교수님의 조국과 인류 전체를 위한 값진 승리를 축하드립니다”고 경의를 표하며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시상했다. 다만 하버는 조국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독가스를 개발한 전범이기도 했다. 이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도 쓰였는데, 하버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역사적 인물은 공과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지만 하버만큼 그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도 드물다.

## 시작은 실수였으나 끝은 구원이 되다 ‘페니실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으로 꼽히는 항생제는 순전히 실수로 개발됐다. 1928년 포도상구균을 연구하던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은 샘플 배양 접시를 제대로 닫지 않고 휴가를 떠났다. 그 사이 샘플이 오염됐는데, 실험실로 돌아온 플레밍은 배양 접시에 있던 포도상구균을 웬 곰팡이들이 먹어치운 것을 발견했다. 플레밍은 이를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좀 더 살펴보고 페니실린이라 불린 이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만든 것이 페니실린이다. 이후 다양한 항생제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지금은 잘 상상이 안 가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감염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예컨대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연고만 있어도 치료 가능한 상처가 팔다리 절단이나 죽음으로 이어지던 게 이때의 일상이었다. 1950년대 50대 언저리였던 인류 평균 수명이 현재 80세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의 기여가 컸다.

페니실린의 원리를 밝힌 공로로 플레밍도 194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다. “실험 중에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이나 생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마라.” 본인이 우연한 기회에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인지 평소에도 플레밍은 후학들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비밀상적 현상을 등한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인류에 새로운 빛의 혁명을 선물하다 ‘청색 LED’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는 인류가 사용해 온 빛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주는 고효율의 친환경 소자다. 이는 적색, 녹색, 청색 순으로 개발됐으며, 청색이 마지막 난제였다. 그 이유는 파장이 짧을수록 빛을 만들어내는 화합물 반도체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적색과 녹색 LED는 이 문제가 없어 60년대에 일찌감치 개발됐다. 그러나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수십 년간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청색 LED를 꼭 개발해야 했던 이유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이 혼합돼야 백색광이 돼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20세기 기술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1992년 아카사키 이사무와 아마노 히로시가 질화갈륨으로 청색 LED 제조에 성공하고 나카무라 슈지가 이의 대량 생산기술을 만들어냈다. 세기의 난제에 도전한 세 과학자의 집념은 무서울 정도다. 아카사키와 아마노는 70년대 초부터 20년 가까이 이론 검토와 실험을 반복했으며, 나카무라도 2년간 사적인 약속을 일절 잡지 않고 하루 100차례씩 실험과 실험을 했다. 그야말로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연구였던 셈이다.

이로써 인류는 새로운 빛의 혁명을 목도하게 됐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청색 LED. 청색 LED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들은 개도국 국민이다. 청색 LED의 완성으로 높은 효율로 밝은 빛을 내는 백색 LED가 가능해져 개도국의 전등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청색 LED의 강한 살균 효과로 위생도 좋아졌다.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의 혜택을 선물해 준 점을 높이 샀던 것이다.

## 자연을 이해하는 행위로서의 과학

과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즉 무언가를 새롭게 알았다는 것만으로 목적을 다룬 것이다. 그렇게 발견한 지식이 후일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것까지 예측하고 계획하면서 연구를 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은 그저 자연에 대한 호기심,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존재일 뿐이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X선, 하버법, 페니실린, 청색 LED의 발견 가능성과 활용 효과를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인류 삶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에는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어쩔지 아직 알 수 없는 연구가 훨씬 더 많다. 지금은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연구라도 20~30년 후 인류의 명운을 뒤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래 과학이란 그런 것이다.

# 뻘한 ‘달콤함’이 싫다면 이곳에서! 국내로 떠나는 특별한 신혼여행지

**여행칼럼**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주목하자.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이벤트 중 하나인 허니문을 국내에서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신혼부부에게 여행 전문기자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국내 허니문 핫스팟을 소개한다. 모두 ‘뻘’하지 않은 곳이라 더욱 특별하다.

글=신익수 <매일경제신문> 여행 전문기자 / 사진=각 업체 제공

## 떠오르는 신혼여행 성지, 울릉도

‘실버 투어’로 평평이 났던 울릉도가 신혼여행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허니문인 만큼 신혼부부가 택한 교통수단은 비행기다. 일단 김포에서 비행기로 포항공항에 도착한다. 포항여객터미널까지 무료셔틀을 타고 이동한 뒤 오전 9시50분 배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간다. ‘캠백’도 역시 비행기다. 울릉도에서 오후 7시에 도착하는 포항행 배를 타고 돌아온다. 전용셔틀을 타고 이번에는 울산공항으로 내달린다. 밤 9시15분 비행기를 타면 오후 10시10분 김포공항에 사뻏히 내린다.

울릉도는 택시가 드물다. 현지 투어는 당연히 렌터카다. 핵심 드라이브 코스는 해안도로, 무리해서 일반 도로를 뺏다간, 험한 길에 당황하기 일쑤니 주의하자. 참고로 울릉도의 해안도로는 제주처럼 일주가 되지 않는다. 섬 동쪽 섬목에서 저동까지는 해안도로가 없다. 속소를 출발해 비경을 보고 숙소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잡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울릉도는 주유소가 드물다. 동동·저동·태하에만 있으니 연료 보충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에게 인기 있는 울릉도 3대 포인트 중 넘버원은 섬목 해안도로다. 유명한 ‘햇뜰’ 나리분지를 가려면 천부마을을 거친다. 이때 천부마을에서 섬목까지 가서 관음도를 꼭 함께 봐야 한다. 이 포인트는 울릉도에서 바다 색깔이 가장 독특한 구간이다. 특히 가는 길에 만나는 삼도, 삼산도는 육로 관광으로는 볼 수 없는 경관을 자랑한다.

석포전망대는 울릉도 여행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MUST SEE’ 포인트다. 골든타임은 일몰로, 이때는 꼭 인증샷을 남겨야 한다. 마지막 추천 코스는 수충교, CF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다. 해안도로를 개설하며 만든 좁은 8자 모양의 다리로 해 질 녘 수충교와 바다가 선홍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장관이다.

**Tip** 울릉도 신혼여행의 달콤한 하룻밤 명소는 ‘코스모스 리조트’. 무수히 겹친 꽃잎을 닮은 건물 외형이 몽환적인 이곳은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천지의 기를 조화시킨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 허니문도 다이내믹하게, 쓰리픽스 챌린지

산을 좋아하는 신혼여행족들은 ‘쓰리픽스 챌린지’에 도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3봉, 한라·지리·설악의 봉우리를 신혼여행 기간에 정복하는 것이다. 최근 승우여행사는 ‘Korea 3 peaks Challenge 5570m’ (이하 5570 챌린지) 패키지를 선보였다. 정확히 3일 만에,



1 울릉도는 제주도에 이어 신혼여행 성지가 됐다. 4,5,8 남아프리카 리조트 호텔을 콘셉트로 인테리어한 롯데호텔 제주. 3,6 요즘 신혼부부에게 인기라는 캠핑카 신혼여행. 2,7 밤 풍경이 특히 이국적인 사무이 제주.

“천편일률 ‘호텔콕 허니문’ 사라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즐기는 스페셜 신혼여행 코스”

3대 봉을 정복하는 코스다. 3일 동안 약 4만7000m를 걷고, 총 5570m 높이를 오른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픈 예비부부들이 심심찮게 도전장을 내민다고 한다.

일정은 이렇다. 첫날 이른 오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천공항에 도착한 후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한다. 바로 삼천포-제주행 선박인 오션비스타제주에 몸을 실어 제주로 향한다. 둘째 날 아침 제주도에 도착해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비행기로 양양공항으로 이동. 셋째 날 설악산 대청봉을 찍으면 완벽한 다이내믹 산행, 아니 ‘신행’이 마무리된다.

한편 다이내믹 여행을 즐기는 신혼부부에게 ‘캠핑카’도 핫하다. 완벽한 언택트 여행에 오붓한 시간까지, 일석이조다. 캠핑카 렌트비는 보통 4박5일에 150만원(2인 기준). 집 앞까지 캠핑카를 배달해 주고, 추가 요금을 내면 웨딩카 장식까지 해준다.

**Tip** ‘5570 챌린지’는 안전 산행 가이드 2명이 동반하며 항공료 2회, 선박비, 숙박비, 현지 버스비, 지역 별미를 포함해 1인당 일요일 출발은 65만원, 금요일 출발은 70만원에 판매 중이다.

## 제주도에서 즐기는 ‘해외St’ 숙소

제주도가 그 옛날 ‘부곡 하와이’만큼 식상하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라도 자는 곳이 차원이 다르다. 대표적인 곳은 애월의 노천탕을 품은 숙소 ‘사무이 제주’. 태국의 코사무이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해외의 럭셔리 풀빌라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다. 이곳의 압권은 거실이다. 통창을 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프라이빗 풀빌라가 펼쳐진다. 수영을 마치면 선선함을 달랠 히노키탕이 온수를 품고 대기 중이다. 제주도 서귀포 라인에서는 코사무이 풍의 럭셔리 펜션이 ‘핫’하다. 입구부터 야자수를 심어 야외에 나와도 태국에 온 듯한 기분이다. 단층 구조의 독채형 빌라들이 일렬로 늘어서, 특히나 밤 풍경이 이국적이라는 평가다.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나보자. 제주도 중문관광단에 위치한 롯데호텔 제주는 남아프리카 리조트 호텔 ‘The Palace of the Lost City’를 콘셉트로 설계된 곳이다. 제주의 자연과 이곳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는 색다른 풍광을 자아내 관광객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다. 야외 스파를 볼 수 있는 가든뷰는 최고 인기 객실. 신혼부부에게는 호텔 내 4채박에 없는 풀빌라 스위트룸이 특히 인기니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Tip** 여행 일정 검색, 호텔 선정 등 모든 것이 귀찮다면 아예 전 일정을 맞춤형으로 짜주는 패키지형 신혼여행 상품도 있다. 이렇아야 ‘국내트로(국내+레트로) 신혼여행’. 집 앞까지 기사와 함께 가이드가 찾아와서 일정 내내 코스를 안내하며 스냅사진까지 찍어준다. 코스는 강원권·전라권·경상권 중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비용은 2박3일 기준 1인 250만원 선. 사무이 제주, 롯데호텔 제주 같은 최고급 숙소까지 골라주니 머리 싸매고 코스와 숙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 창립 74주년 기념 테스트 현대건설 역사 영역

성명	<input type="text"/>
사원번호	<input type="text"/>

어느덧 창립 74주년. 긴 나이만큼 현대건설이 써 내려온 역사도 화려하다.  
현대건설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백점 만점을 기대해볼 만한  
현대건설 역사 상식 테스트! 지금 정답을 외쳐보자. 정리=강은비

### OX 퀴즈

- 우리 회사 신화의 시작, '현대토건'은 1948년에 설립됐다.
- 우리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는 '2006년'에 론칭됐다.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건설한 사물라 발전소는 '수력' 발전소다.
-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의 첫 LNG 해외 진출작이자, LNG 저장탱크 8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LNG 탱크 건설 공사다.

### 객관식

- 우리 회사가 남극에 지은 과학기지 이름이 아닌 것은?  
① 세종과학기지 ② 정보고과학기지 ③ 이순신과학기지
- 카타르의 랜드마크 국립박물관은 '이것'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① 사막의 모래바람 ② 사막의 선인장 ③ 사막의 장미
- 우리 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는?  
① 호주 ② 캐나다 ③ 뉴질랜드
- 우리 회사가 건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이름은?  
① 경부고속도로 ② 경인고속도로 ③ 제2영동고속도로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로 아랍 지역 최초의 상용 원전인 '□'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어느 국가에서 건설하고 있나?  
① 사우디아라비아 ② 쿠웨이트 ③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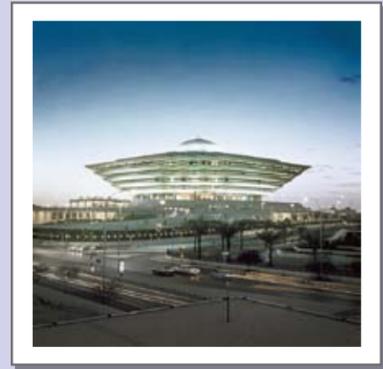
### 주관식 ※QR코드 퀴즈

- 대한민국 최초이자 우리 회사의 첫 해외 수주인 이 프로젝트는 어느 국가의 무엇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가? (나라, 현장명 표기)
-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한강에 세운 다리는 총 몇 개인가?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 그림퀴즈

철의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현장. 1992년 2월에 완공한 이 건물은 우리 회사 해외 건축물 중 손가락에 꼽히는 역작이다. 리야드 최고의 랜드마크인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왕국 리야드 타워의 외형은  
① '92년 2월 20일 11시 11분 11초 (동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 (동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 (동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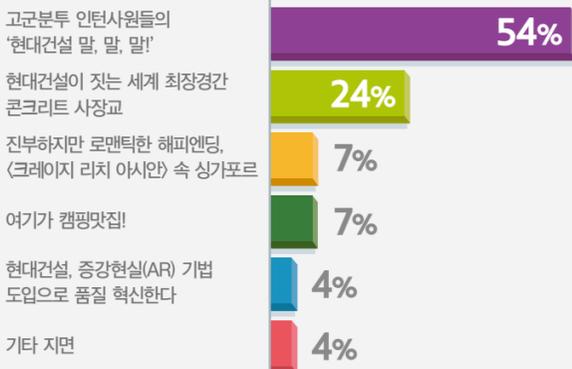


### 독자 참여 코너

## Stay with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399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최신 기술

#현대건설 패션왕, 출퇴근 패션

#여름 휴양소 & 대표 맛집 소개

#HMAP mBEST 인터뷰

#아파트 신축과 리모델링 현장의 차이점

###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6월 18(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상품 소정의 상품(5명)



## 빈티지한 색감과 유머러스한 디테일이 인상적인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2021. 7. 11 | 마이아트뮤지엄

영화의 순간을 독창적 일러스트로 재탄생시킨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의 전시가 한국을 찾았다. 20년 동안 대중문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인상적인 작업을 이어온 맥스 달튼.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웨스 앤더슨 컬렉션』과 『웨스 앤더슨 컬렉션: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연이어 출간돼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번 전시는 맥스 달튼의 창의적인 일러스트로 표현된 ‘영화의 순간들’을 주제로 기획됐다. <스타워즈> <메트로폴리스> 등 SF 영화와 1980~90년대 장르 영화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일러스트로 녹여냈다. 전시 작품은 주제에 따라 5부로 나뉘며, 주제별 영화·‘비틀즈’와 ‘밥 딜런’과 같은 음악적 거장들의 LP 커버·동화책 일러스트 등 리미티드 에디션 포스터, 드로잉, 수채 등 2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마이아트뮤지엄 커미션 신작으로 한국 영화 <기생충> 과 <반지의 제왕> 포스터 일러스트와 미공개 연작 8점, 초안 드로잉 등을 최초로 선보인다.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인 ‘당신을 위한 영화 취향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취향을 알아보고 공유하는 등 즐거운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웨이브’ ‘지니뮤직’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영화와 OST 감상이 가능한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독특한 일러스트와 함께 자신의 영화 취향을 찾아서 맥스 달튼 전시를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2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맥스 달튼 전시회 포스터에 쓰인 대표 일러스트. 3 음악 거장들의 LP 커버 일러스트로 볼 수 있다. 4 주제별 영화의 순간들을 그린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다. 5 화가의 작업실-프리다칼로(2021). 6 영화 <쥬라기 공원>의 일러스트(2019).

